

4.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18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오전) 논술고사의 주제는 '사회화를 바라보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의 비교'이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의 문화를 배우고 그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의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 통합에 공헌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반면,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화는 개인이 지배계층의 이념과 체제 구조를 비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미시적 관점에서 사회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번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이 이처럼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화가 갖는 의미와 결과를 해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기획됐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 내 사회·문화 과목에서 '개인과 사회 구조' 단원에서 공통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고등학생에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편입되는) 과정을 학습시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성취 기준으로 두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이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지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논술고사가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과 수리 계산 등 다양한 성격의 지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물론 모든 제시문은 교과서 내용이거나, 교과서 내용과 관련됐거나, 고교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사회화의 3가지 관점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고등학교 사회·문화>에 나타난 내용을 발췌했으며, 이 주제는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사회·문화>(비상교육)의 59-60쪽과 <고등학교 사회·문화>(미래엔)의 53-54쪽의 내용이 3개의 지문에서 사용됐다. 지문에 사용된 시(제시문 [나])도 <고등학교 문학>(동아출판) 342쪽에 실린 것이다.

<제시문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신형민 등	비상교육	2013	59-60	제시문 [다], [라], [사]	O
고등학교 사회·문화	강운선 등	미래엔	2013	53-54	제시문 [다], [라], [사]	O
고등학교 문학	김창원 등	동아출판	2013	342	제시문 [나]	X
교육학의 이해	조경원 등	이화여대 출판부	1990	177-180	제시문 [가]	O
철학VS철학: 동서양 철학의 모든 것	강신주	그린비	2010	369	제시문 [다]	O
책상을 떠난 철학	이현영 등	들녘	2015	174-176	제시문 [마]	X
스포츠 사회학 플러스	원영신	대경북스	2006	57-60	제시문 [바]	O
고등학교 수학 I	우정호 등	동아출판	2014	222-234	[논제 III]	-

* 재구성은 지문의 논지를 명확히 해 교과 과정에 충실했던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는 취지로 이루어졌음.

5.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학교 교육이 개인에게 사회의 규범과 가치 등을 학습시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유익한 사회화 제도라고 설명한다. [나]는 일부 사회 구성원이 지배계층의 억압적인 가치관 강요에 대해 자유를 갈망하지만 결국 좌절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다]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 지배계층의 이념과 체제 구조를 비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라]는 개인이 사회의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 통합에 공헌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마]는 지배층인 여성에게 남성이 성적으로 억압받지만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세상을 그리고 있다. [바]는 스포츠가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체험시켜 사회 체제를 유지시키고 개인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는 사회화가 다른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뤄지며, 개인은 다른 구성원의 말이나 몸짓을 모방하고 이해해 가며 사회의 규칙을 내면화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논술고사의 논제는 일반논술 2문제, 수리논술 1문제 총 3문제를 출제하였다. 일반논술 문제는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논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I]은 사회화의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두 가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격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주어진 제시문들을 개인이 사회화를 통해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 통합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능론 관점과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 지배계층의 이념과 체제 구조를 비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갈등론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II]에서는 사회화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을 읽고 사회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미시적 과정임을 이해하는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화가 개인이 거대한 사회에 적응하거나 편입되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 상징을 매개로 의미를 교환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회화가 부정적 의미([다]의 갈등론적 관점) 또는 긍정적 의미([라]의 기능론적 관점) 일변도로 해석될 수 없으며, 어떤 구성원과 어떤 의미를 주고받았느냐에 따라 사회화는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 능력도 필요하다. 이 논제를 통해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과정 상의 ‘사회화’에 대한 개념 이해와 관점 비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 이질적인 두 종류의 텍스트, 즉 사회과학과 인문학 제시문들을 교차해서 읽고 제시문의 주장을 분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도 평가 가능하다.

[문제 III]은 수학의 기본 도구인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주어진 환경을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표현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였다.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방정식과 부등식의 개념을 활용하여 논제에 적합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에 적절한 평가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제약된 조건 하에서 의사 결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였다. 사회계열 전공자에게 사회의 현상과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 원리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